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황 현 산  
문학평론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총서들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프랑스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크세주’ 문고는 아마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할 것이다. 가로 11.5cm 세로 17.5cm의 문고본 판형 128쪽에 학식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백과사전적 지식을 항목별로 담고 있는 이 총서는 현재 3000여권을 펴낸 웃도는 책이 40여개의 언어로 옮겨졌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한국어로도 발간되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지닌 독서 대중을 위해 각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필을 담당한 이 ‘백과 문고’는 우리 시대의 학술을 대표할 만한 기본 지식의 저장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의 ‘크세주’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서양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에서 에세이란 장르를 창시한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가져온 말이다. 몽테뉴는 이 말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의심하는 상태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담았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그 주장을 방법적 회의주의라고 부르는데,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지식을, 특히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의심해 본다는 뜻이다.

한 개인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도 없거니와 어떤 사안이나 현상에 대해 일정한 지식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앞의 끝일 수 없다. 그 지식은 그의 지적 조건과 근면성과 주어진 자료에 따른 현재 상태의 지식일 뿐이 아니라 모든 지식에 관한 담론은 그 탐구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이라는 것이 매우 즐거운 예술인 것이 다른 예술은 치료된 다음에만 즐겁지만 철학은 즐거움과 치료를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말도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은 모든 교육이 가벼운 축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인용되기도 하지만, 모든 지식은 교리와 독단의 형식으로 전

해질 것이 아니라 유동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는 뜻을 그 배후에 숨기고 있다.

의심하는 상태에서 그 의심을 깨치면서 앞을 낚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즐거운 일도 드물다. 몽테뉴가 남긴 수많은 말 가운데 내가 이 두 문장을 같은 순간에 떠올리게 되는 것은 지식 탐구에 대한 그의 회의주의에 내가 동의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식에 대한 몽테뉴의 태도를 내 생활에서 다시금 긍정하게 되는 경험은 의술과, 아니 정확히 더 말해서 의사 선생들과 연결될 때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생이던 때 어떤 의사가 쓴 칼럼 하나를 읽었다. 그는 유학 시절에 사권 미국인 의사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 인삼을 선물로 주었다. 그 미국인 의사는 제 나라에 돌아가 인삼을 분석했다니 치료나 건강 유지에 특별히 유효한 성분이 없다는 편지를 한국인 친구, 다시 말해서 그 칼럼의 필자에게 보내 왔다. 한국인 의사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인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미신일 뿐이라고 칼럼에 적고 있었다.

홍역을 앓는 중에 피란을 가서 생사의 길을 헤매던 나는 인삼탕으로 건강을 회

복한 경험이 있기에 그 의사의 칼럼을 신중히 어려웠다. 그의 미국인 친구가 별성도 없이 인삼을 분석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인삼의 효능은 여러 실험과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여러 경험 중에 한 가지 예만 더 들자. 황희 정승이 말년에 한쪽 눈을 감고 책을 읽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하인에게 “눈을 번갈아서 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한 안과 의사가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두 눈의 초점을 맞춰 사물을 보는 ‘눈의 과학’을 말하며, 황희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나는 최근에 밤중에 책을 읽다가 두 눈을 번갈아 뜨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좌우의 시력이 다른 심한 쪽눈이다. 눈이 피곤할 때는 초점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눈을 번갈아 뜨는 편이 더 나은 것이다. 뜨고 있는 눈은 힘이 들지만 감은 눈이 그동안 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한 지식 체계의 변두리에서는 지식이 넓은 경험을 식민화하지만, 오히려 중심부에서는 지식이 늘 겸손한 태도로 세상을 본다. 제가 무지 앞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지에 둘러싸여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다.

종교칼럼

입시기도문



원 목  
선덕사 주지

2018학년도 대입 수능평가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시철이 되면 종교를 불문하고 자녀를 위해 자극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들 또한 수험생 뒷바라지에 힘겨워하면서도 자녀를 위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손을 모으는 것이다. 그런데 입시기도는 과연 효험이 있을까?

“아난이여, 저기 강가에 모여 있는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뱃다시여, 저들은 어제 세상을 떠난 신도가 천국에 태어나라고 제사를 지내고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난이여, 배에 바위를 싣고 강을 건너다가 그만 강물에 빠졌습니다. 사람

들이 모여서 ‘바위야, 떠올라라! 바위야, 떠올라라!’ 하고 외친다면 바위가 물 위로 떠오르겠습니까?”  
“뱃다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백 명, 천 명 혹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외치고 강에 제물을 바치더라도 바위는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난이여, 실로 그렇습니다. 선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 선한 업의 힘으로 천국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삶을 산 사람은 천국에 태어나라고 주문을 외워도 가리키는 바위처럼 더 낮은 세상으로 떨어질 뿐, 천국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부모의 기도보다 학생의 노력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노력이 제일 효험이 큰 기도이다. 콩나물을 기르려면 콩에다 물을 주어야 한다.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너무 뜸엎뜨면 주면 콩나물 상태가 나빠지지만, 콩이 아닌 돌맹이에 물을 붓는다면 콩나물을 결코 얻을 수 없다.

한편 기도는 이치에 맞지 않게 하면 효험이 없다. 위대한 권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존재에게 선물을 달라고 매달리는 기도, 얼마만큼 돈이나 물품을 바쳤으니 보답을 달라는 거래의

기도,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하면 좋으니니까 하는 기도, 자신이 간절히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종교인이 기도를 대신해준다고 생각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모두 나 또는 우리의 이익을 바라는 기도이다.

이렇게 바라는 기도는 ‘공동체 생명’이라는 우리 존재의 이치에 맞지 않아서 효험이 없을 뿐 아니라 중증 미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참된 기도는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 없이, 공동체 생명을 이루는 관계에 맞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인데, 이 기도는 기도하는 즉시 효과가 이루어진다.

효모를 위한 가족 발원문은 이렇다.  
①아이가 힘든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겠습니다. ②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를 대하지 않겠습니다. ③아이가 지금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④언제나 아이가 부담을 갖지 않게 하겠습니다. ⑤아이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⑥아이가 평화롭고 행복하

도록 내가 먼저 평화가 되겠습니다. ⑦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며, 부모의 말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⑧지금의 우리 아이 그대로, 더 믿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원하오니 거룩한 부처님아시여, 자비로 가피하소서. 기도 서원하는 ○○ ○다짐.

학생을 위한 기도 서원문은 이렇다. ①나를 존중하게 하는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②나는 지금 여기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③짜증과 화가 일어날 때는 알아차림이 함께 하는 평화로운 숨쉬기 명상으로 다스리겠습니다. ④피곤할 때는 우선 잘 쉬겠습니다. ⑤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공부와 휴식이 방해받지 않겠습니다. ⑥공부 중에 다른 생각이 날 때는 즉시 메모해두고 공부로 돌아오겠습니다. ⑦건강하게 먹고, 틈나는 대로 운동하겠습니다. ⑧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10초간 눈을 감고 조용히 숨쉬기를 하겠습니다. ⑨친구를 또한 함들고 불안한 시간임을 이해하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⑩나는 지금까지 잘 했고, 오늘도 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원하오니 거룩한 부처님아시여, 자비로 가피하소서. 기도 서원하는 ○○○ 다짐.

기 고

환경과 시민을 이어주는 ‘오작교’



안 용 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화(說話)중 하나인 견우와 직녀가 생각난다. 설화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주 먼 옛날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하늘나라 궁전의 은하수 건너에 부지런한 목동인 견우가 살고 있었다. 옥황상제는 견우가 부지런하고 착하여 손녀인 직녀와 결혼을 시켰다.

그런데 그 둘 사이가 너무 좋아 견우는 농사일을, 그리고 직녀는 베 짜는 일을 게을리했다. 이에 노한 옥황상제가 둘을 갈라놓기 위해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 직녀는 서쪽에 살도록 했다. 서로 떨어진 그들은 1년에 단 하루만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들 사이에는 은하수가 있어 서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훗날 까치와 까마귀가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서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을 만나게 해줬다고 한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던 날은 음력 7월 7일(음력은 8월 28일)로 칠월 칠석이라 불린다. 이 칠석날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까치와 까마귀가 머리에 돌을 이고 올라가서 만든 다리(橋梁) 덕분이었다.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까치와 까마귀가 하늘로 올라가 은하수를 가로질러 스스로 다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까마귀 오(烏)자와 까치 작(鵲)자를 쓴 ‘오작교’(烏鵲橋)의 유래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지내는 발을 받게 된 견우와 직녀, 이 두 사랑을 연결시켜 만나게 해주었다는 전설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스스로 오작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누군가의 인연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다툼을 중재해주기도 하면서 말이다.

이런 까치와 까마귀의 마음을 이어받아 광주환경공단 또한 오작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설화에서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준 까치와 까마귀가 만든 다리처럼 우리 공단 또한 환경과 시민을 연결하는 특별한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광주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분노,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낱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에 민감하다. 특히 환경과 인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운영의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되는 곳이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졌다. 그러나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구를 위해 작게나마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민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 서포터즈’ 활동이 좋은 예다. 이는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역할 중의 하나로, 환경 서포터즈는 순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을 견학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환경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이 시민을 교육한다는 말이 다소 어색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동일한 눈높이의 교육을 한다는 점이 어쩌면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 교육이 아닐까 싶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효과 또한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 중이다.

어느 것이든 생각만 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사회는 움직여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 행동 계기를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환경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실천에 옮기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과 시민 사이의 까치와 까마귀가 되어 돌을 이어 주는 ‘오작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社 說

5·18 발포 명령자 색출 드디어 때가 됐다

5·18 당시 민간인을 향한 발포 명령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명령자가 누구인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발포 명령 하달’이라고 분명하게 적힌 문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505 보안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에는 ‘전교사(전투교육사령부)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는 문서상 확인된 최초의 발포명령이다. 그동안 군 당국은 그동안 5·18 집단발포에 대해 ‘자위권 발동’이라는 주장을 펴 왔었다. 1980년 5월 20일자 기록보다 눈을 번갈아 뜨는 편이 더 나은 것이다. 뜨고 있는 눈은 힘이 들지만 감은 눈이 그동안 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한 지식 체계의 변두리에서는 지식이 넓은 경험을 식민화하지만, 오히려 중심부에서는 지식이 늘 겸손한 태도로 세상을 본다. 제가 무지 앞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지에 둘러싸여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다.

문서 가장 아래에는 ‘(80. 5. 21 00 : 20. 505)’이라는 숫자가 나열돼 있는데 5·18 재단은 이를 토대로 1980년 5월 21일 새벽 0시20분께 광주에 주둔했던 505보안부대에서 이 문서를 작성한 505보안부대에서 이 문서를 작성한 505보안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에는 ‘전교사(전투교육사령부)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들 문서상 확인된 최초의 발포명령이다. 그동안 군 당국은 그동안 5·18 집단발포에 대해 ‘자위권 발동’이라는 주장을 펴 왔었다. 1980년 5월 20일자 기록보다 눈을 번갈아 뜨는 편이 더 나은 것이다. 뜨고 있는 눈은 힘이 들지만 감은 눈이 그동안 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한 지식 체계의 변두리에서는 지식이 넓은 경험을 식민화하지만, 오히려 중심부에서는 지식이 늘 겸손한 태도로 세상을 본다. 제가 무지 앞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지에 둘러싸여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다.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결정 빠를수록 좋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이 사업이 분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추승용 의원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이 올 하반기 안에 어떻게든 결정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애초 올해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노선과 비용 문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갈등으로 수차례 늦춰졌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14년 타당성 방해받지 않겠습니다. ⑥공부 중에 다른 생각이 날 때는 즉시 메모해두고 공부로 돌아오겠습니다. ⑦건강하게 먹고, 틈나는 대로 운동하겠습니다. ⑧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10초간 눈을 감고 조용히 숨쉬기를 하겠습니다. ⑨친구를 또한 함들고 불안한 시간임을 이해하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⑩나는 지금까지 잘 했고, 오늘도 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원하오니 거룩한 부처님아시여, 자비로 가피하소서. 기도 서원하는 ○○○ 다짐.

활용하는 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기재부는 광주 송정~목포 간 기존선(66.8km)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에는 16.6km의 지선을 신설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반영한 800억 원의 예산 중 500억 원이 불용 처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회는 지난 3월 국토부와 전남도가 합의한 대로 무안공항 경유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정부 예산의 적기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노선 갈등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980년 5월 27일 04시, 3공수여단 11대대가 전남도청에 진입했다. 도청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다. 콩 볶는 듯 요란한 총소리에 광주 시민 모두 잠 못 이루 람, 반만년 역사상 가장 길었던 새벽이었다. 도청이 함락되자 10일간의 항쟁은 끝이 났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애절한 목소리만 남았다.

작전이 끝난 뒤 ‘공수’들은 승전가(?)를 불렀다. 분수대 앞에 20여 명이 도열해 목청껏 부른 군가는 ‘검은 베레모’,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부대 용사들~’ 어가에 멘 M16 총구

‘검은 베레모’

엔 화약 냄새가 채 가

총을 썼다며 조준사격에 시민 수십 명이 쓰러졌다고 증언했다.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전두환이 시죄하지 않는다면 그의 도구가 되어 무고한 시민을 살상한 공수부대원들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엔 “영화 ‘택시운전사’를 봤는데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는 장면이 그때 상황과 비슷하더라”고 회고했다.

‘택시운전사’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가 흥행하자 5·18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국방부가 헬기 사격과 폭격

준비 조사에 착수했고 1980년 당시의 문서 공개와 군인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지역에서는 관련자의 증언이 없다. 진압군으로 참여한 3·7·11공수여단, 특히 지역 연고 부대인 7공수여단 출신 중에는 광주와 전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37년이 지나 그들도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됐다. 더 늦기 전에 침묵에서 깨어나 5·18의 경험과 당시 목격한 진실을 증언했으면 한다. 시가는 아무도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